

전시회로 부활하는 백남준의 '예술혼'

'비디오 아트 창시자' 고(故) 백남준의 2주기(29일)를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추모식, 추모문집 출판기념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전시회 중심으로 비교적 조촐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특별한 기획전 대신 상설전 코너에 '가족 시리즈' 등 백남준의 작품 10여 점 전시한다. 삼성 리움미술관은 '파우스트-자서전' 등을 개최해 그의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인천공항 밀레니엄 홀에서는 '거북이' '비디오백' '요셉 보이스' 등 백남준의 주요 작품으로 꾸민 '백남준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열린다. 사립미술관인 용인 한국미술관은 백남준을 재조명하는 '백남준 선생, 가시고 365×2 이야기'전을 오는 30~4월30일까지 연다. 고인의 아내인 구보타 시게코의 '마이 라이프 위드 백남준'을 비롯해 천재의 국내 작가 13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마이 라이프'는 백남준이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던 1960년대부터 2년 전 전례식 장면까지를 담은 60분 길이의 영상 작품이다. 1984년 첫 내한기간 중 백씨가 부모 묘를 참배하던 모습, 2002년 뉴욕 국립현대미술관의 레이저작품 및 백씨의 치료장면이나 생전 미국 생활도 볼 수 있다. 가수 겸 작가인 조영남은 백남준과 구보타를 소재로 한 설치 작품을 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도 지난 1995년 제1회 비엔날레 기간에 고인이 기증했던 '고인물'을 선보인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백남준 작 '고인물'

'향일음악전사 정율성' 출간돼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라 명성을 떨친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鄭律成·1914~1976)이 역사 속에서 부활했다. 이권상 전남일보 기자가 식민지 시대에 총과 음악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정율성의 삶을 담아 '향일음악전사 정율성'으로 출간됐다. 정율성 평전 격인 책은 '향일음악전사 정율성' '정율성의 항일 음악세계' '정율성 관련조를 만들자'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저자는 정율성의 외동딸인 정소혜 여사, 중국 연변대학 김성준 교수를 통해 사진 등 부족했던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연인 등 정율성의 활동 경로를 따라 삶과 행적을 조명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해금 중주단 '풍요'는 해금의 멋스러움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주단체를 꿈꾸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금 선율에 환경 사랑 가득 담았어요"

■ 해금 대중화 앞장 '에코예술단-풍요'

환경 바람회 등 세계 각국 돌며 환경 사랑 전파. 요즘 국악기중 가장 인기가 높게 해금이다. '짙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해금은 강은일, 정수년, 꽃별 등 유명 연주자들이 등장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다. 음반 판매량도 높고, 개인 블로그에 연주 음악을 올려 두는 사람들도 많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에코예술단 풍요(風濤)'는 해금 연주자로서 이 루어준 중주단이다. 해금과 양악기가 어우러진 퓨전 그룹이나 개인 연주자는 많지만 해금 중주단은 전국적으로 드물어 눈길을 끈다. '풍요'는 해금 연주자 7명과 피아노 연주자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풍요'가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 '풍요' 추천 해금곡 7

Table with 2 columns: 곡 제목, 연주자. Rows include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정수년), '하얀등대' (김예란), '비에 젖은 해금' (강은일), '그저네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송기동), '이리저리' (정연신), '작별' (김영재), '하늘빛 그리움' (이현의 등).

는 요묘한 소리도 아름답지만 특이 다른 국악기나 서양악기와 어울려 질 때 묘한 매력을 준다. '풍요'는 '작남' 등 정통 해금곡과 함께 'G선상의 아리아' 등 서양음악도 해금으로 들려준다. 단원들은 연주회에서 '해금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소리를 들으면 행복하다. 올해는 더블베이스 등 현악기와 앙상블을 시도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서양의 작곡가에게 '한국의 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고단장은 당초 계획보다는 늦었지만 지난 2006년 '풍요'를 조직하고 나지은(34), 김선영(32), 조다영(25)·다희(24)자매, 이유리(26), 김유라(23)씨 등으로 팀을 꾸렸다. 단원들은 회의를 통해 연주 곡목을 정한 뒤 한달에 두차례씩 모여 집중적인 연습을 한다. 해금 연주는 단 두 줄이 만들어내

'노래 봉사단' 31일 봉선동 민들레 요양원 공연

'사랑 실은 노래봉사단'이 설을 맞아 오는 31일 오전 10시 중흥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인 광주 남구 봉선동 민들레 요양원에서 위문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상무대 군악대의 오프닝 연주를 시작으로 이애자, 황해금, 국승봉, 신은실 씨 등이 출연. '남아 백수 인생' '뜨겁습니다' '마이웨이' '멋진 인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또 박성용 씨의 '신비한 마술 세계'와 코미디언 한심아 씨의 '코미디 쇼 웃으며 삽시다'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됐다. '사랑 실은 노래봉사단'은 지난 1993년 각 방송국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90여 명이 모여 노래로 봉사하는 단체로 매월 한 차례씩 양로원 등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해 지금까지 모두 395회 공연을



진행해왔다. 문의 062-269-0500.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Movie banner for Happy Time featuring film strips and the text '영화안내'.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스위니 토드' and '무방비도시'.

Advertisement for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스위니 토드' and '뜨거운 것이 좋아'.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미스트' and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Advertisement for Sinner's Theater listing movies like '스위니 토드' and '뜨거운 것이 좋아'.

Advertisement for Mujeong극장 listing movies like '미스트' and '아리랑왕자'.

Advertisement for Zeil Cinema listing movies like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and '뜨거운 것이 좋아'.